

RESEARCH ARTICLE

A Study on the discussions about the Two Hindrances of the Fǎxiàng Yogācāra Buddhism: Focusing on the contents of Chéng wéishì lùn and Dasheng fayuan yilin zhang^{*}

Park, Jaeyong^{*}

Professor, Meditation Counseling Continuing Education

이장(二障)에 대한 법상유식의 논의 고찰: 『성유식론』과 『대승법원의림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박재용^{*}

한국명상심리상담교육원 교수

^{*}Corresponding Author: wilkfire@hanmail.net

OPEN ACCESS

Citation : Park, Jaeyong. A Study on the discussions about the Two Hindrances of the Fǎxiàng Yogācāra Buddhism: Focusing on the contents of Chéng wéishì lùn and Dasheng fayuan yilin zhang. Journal of Meditation based Psychological Counseling 31, 27-37.

DOI: <https://doi.org/10.12972/mpca.20240003>

Received: May 19, 2024

Revised: June 21, 2024

Accepted: June 25, 2024

Copyright : © 2024 Meditation based Psychological Counseling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discussion of the Two Hindrances in the Fǎxiàng Yogācāra Buddhist treatise Chéng wéishì lùn(成唯識論) and Kyu-ji's Dasheng fayuan yilin zhang(大乘法苑義林章). It is through Abhidharma Buddhism and then the Yogācāra Buddhism that the concep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ffliction and awakening was formulated as the Two Hindrances. The discussion of the Two Hindrances in the Yogācārabhūmi is organized in its final form through the Fódìjīng lùn(佛地經論) and the Chéng wéishì lùn. As a result, the Two Hindrances of the Chéng wéishì lùn are associated with two kinds of attachment, two kinds of emptiness, and two kinds of achievement, and play a central role in the Affliction theory and the Practice theory of Yogācāra Buddhism. This study focuses on the discussion of the Two Hindrances interspersed within the Chéng wéishì lùn, reorienting the development of the Chéng wéishì lùn around the Two Hindrances. This reveals that the Two Hindrances play a central role not only in Yogācāra Buddhism's Affliction theory, but also in its Practice theory and Becoming Buddha. In fact, the Five stage division of the Yogācāra path of practice also centers on when and how to eliminate and end the afflictive hindrances and obstacles to understanding rather than on specific practices. Finally, Wonhyo gave a very original interpretation in reconciling Yogācāra sūtras and śāstras with the discussion of the Two Hindrances in the Doctrine of the Two Hindrances(Ijang ui, 二障義) and the Awakening of Mahāyāna Faith(大乘起信論). But in Dasheng fayuan yilin zhang, Kyu-ji considered that the interpretation of the Two Hindrances discussed in Chéng wéishì lùn was no more than an interpretation of the Two Hindrances. Unlike Wonhyo, Kyu-ji's discussion of the Two Hindrances merely summarizes Yogācāra Buddhism's discussion of the Two Hindrances and adopts Chéng wéishì lùn's discussion as it stands, and Kyu-ji's position is confirmed by Dasheng fayuan yilin zhang's discussion of the Two Hindrances.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5A17057384)

Keywords : Two Hindrances, the afflictive hindrances, the obstructions to understanding, Chéng wéishì lùn, Dasheng fayuan yilin zhang, Ijang ui, Kyu-ji, Wonhyo

I. 서론

1. 번뇌설과 이장(二障)

유식 문헌에 등장하는 이장(二障)은 두 가지 장애인 번뇌장(煩惱障, kleśa-āvaraṇa)과 소지장(所知障, jñeya-āvaraṇa)을 말하며 각각 열반(涅槃)과 보리(菩提)를 장애한다는 내용을 갖는다. 여기서 장(障)의 원어는 āvaraṇa로서 ‘덮다’·‘막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불교 수행의 목표인 깨달음을 얻는 데 장애가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초기불교의 번뇌설은 아비달마불교의 번뇌(煩惱) 심소와 수면(隨眠)설로 정리된 후 98수면 혹은 128번뇌설 등으로 전개된다. 유식불교 이전에도 논사들은 번뇌에 대한 분류와 탐구를 통해 그 기반이 근본무명에 의거한 것으로 보고 이를 ‘장(障, āvaraṇa)’이라고 표현하였다. 아함경과 같은 초기 경전에 업장(業障)·번뇌장(煩惱障)·이숙장(異熟障) 등으로 그 맹아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소지장(所知障)이라는 표현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으며 이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약간 후대인 『대비바사론(大毘婆沙論)』으로부터라고 볼 수 있다.(유진, 286-287) 이 논서에 등장하는 소지장의 뜻은 염오되지 않은 무지[不染污無知]를 말하는 것이므로 후대 유식 문헌의 의미와는 차이가 있다. 번뇌장을 단멸하여 불선법(不善法)을 끊고, 불염오무지인 소지장을 단멸하여 선법(善法)을 생기게 한다는 의미가 『대비바사론』에 나타난 번뇌장과 소지장의 뜻이라고 볼 수 있다. 대승불교 시대에 들어 번뇌가 중생들을 계박(繫縛)하고 깨달음을 장애하는 작용을 한다는 의미에서 번뇌를 크게 두 범주로 정리한 것이 바로 번뇌장, 소지장이다. 아비달마 시대에 번뇌장과 소지장에 대한 산재된 논의가, 유식 문헌에서 본격적인 이장으로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장은 유식 문헌에 공통되게 나타나지만 유식학과에 한정된 고유의 개념일 뿐 아니라 대승불교에 공통된 주제이다. 따라서 유식문헌 외에 여래장계 문헌에도 이장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지만 그 내용은 큰 차이가 있지 않다. 다만 이장이 갖는 2원적 구조의 형태와 내용은 유식경론에서 체계화된 것이다.

대승불교 시기 인도에서의 이장에 대한 논의는 6세기 이후 중국과 동아시아에서도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동아시아에서는 『유가사지론』과 『성유식론』과 같은 유식 논서에 나타나는 이장에 대한 논의와 별개로, 『대승기신론』과 관련해서도 이장을 해석하고자 하였는데 그 대표적 인물이 정영사 혜원(慧遠, 538-597)이다. 혜원은 『대승기신론의소(大乘起信論義疏)』에서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에 등장하는 이장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하고 있다. 혜원은 유식 문헌과 여래장계 문헌에 나타나는 이장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근 1세기 뒤에 원효(元曉, 617-686)는 『대승기신론』과 관련된 소(疏)와 별기(別記) 외에 『이장의(二障義)』라는 별도의 문헌을 저술하였다. 원효는 혜원의 영향을 받아 『이장의』에서 이장을 표층적/심층적 번뇌 구조로 파악하기도 하였다.(Muller Charles 2013, 1195-1196)

본 논문에서는 법상유식의 소의 논서인 『성유식론』과 『대승법원의림장』(이하 『의림장』)에 나타난 번뇌론과 수행론을 이장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법상유식에서 이장 논의가 차지하는 위치와 그 비중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2. 이장에 관한 선행 연구 고찰

이장(二障)에 대한 논의는 6세기 이후 중국을 비롯하여 동아시아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영사 혜원은 『대승기신론의소』에서 『대승기신론』에 언급되는 이장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하고 있다. 시기적으로 볼 때 혜원은 『성유식론』을 편찬한 현장(玄奘, 602-664)보다 앞 선 세대이므로 현장이 혜원으로부터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도 있지만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성유식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원효(元曉, 617-686) 역시 혜원 보다 후대로서 『대승기신론』의 논의를 토대로 『이장의』를 별도로 저술하고 유식계와 여래장계의 이장을 통합하고 있다.(찰스 밀러 2015, 325) 혜원이 원효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사상적 관계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장(二障)에 대한 현대적 선행 연구는 일본에서 다양한 형태로 행해졌다. 먼저 유식문헌에 나타나는 이장에 대한 주요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富貴原章信(1937)은 집장(執障)의 문제를 처음으로 다루었고, 이후 소지장과 관련된 연구로는 芳村修基(1964), 小谷信千代(1978), 池田道浩(2000, 2003, 2011, 2013), 堀内俊郎(2005), 松下俊英(2009, 2014), 佐々木宣祐(2012), 倉松崇忠(2017), 太田露子(2018) 등이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유식불교의 소지장에 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소지장이 불염오무지(不染污無知)로 분류되므로 이와 관련된 연구도 행해졌다. 또한 번뇌장·소지장 이장에 대한 내용으로 舟橋尚哉(1965)와 李平来(1985)는 이장을 인무아(人無我)·법무아(法無我)와 연관시켰고, 池田道浩(2003)는 성문·독각의 법무아 성취가 가능한지를 고찰하기도 하였다. 찰스 밀러는 여래장과 유식에서

의 이장설을 비교하기도 하였고(2015), 이를 원효와 혜원의 이장설 논의로 확장시켰으며(2000, 2006), 유식불교의 이장을 『유가사지론』을 중심으로 고찰(Muller Charles, 2004)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는 원효의 『이장의』를 중심으로 연구가 주로 행해졌으며 이에 대한 논문으로는 정영근(1981), 이평래(1982), 기덕철(1987), 이정희(1992), 김수정(1994), 석길암(2001), 안성두(2017) 등이 있다. 원효와 혜원의 이장에 대한 비교 연구로는 김수정(2013), 최연식(2016), 이상민(2020), 정은희(2020)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안성두는 『이장의』의 현료문의 특징을 고찰하여 원효의 번뇌설이 『성유식론』의 이장과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최연식은 원효 『이장의』의 은밀문을 혜원의 『대승의장』 「이장의」와 비교를 통해 원효 『이장의』의 성립배경을 고찰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연구에서는 이장 중 유식불교의 소지장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거나 원효와 혜원의 비교 연구가 많이 행해졌으며, 국내에서는 원효의 『이장의』와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혜원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일부 행해지고 있다.

유식불교의 입장에서 이장을 고찰한 국내 연구로는 김명실(1998), 정준기(2000), 조수동(2013), 안성두(2019) 등이 있는데, 김명실은 이장의 형성 및 소멸원리를 『성유식론』에 나타나는 내용을 통해 전개하는데, 아와 법의 2집(執)에 집착하기 때문에 이장인 번뇌장과 소지장이 일어나며 이를 없애는 방법으로 아공(我空)과 법공(法空)을 제시한다는 『성유식론』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유진은 심식설의 변천을 정리한 후, 번뇌 심소와 이장의 연관관계를 밝히고 있고, 안성두는 법무아(法無我)의 증득을 이장과 연관시켜 논의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동아시아 불교의 이장 논의에 대해 정리해보면, 혜원과 원효가 『대승기신론』의 논의를 토대로 이장에 대한 정리와 분석을 진행한 한편 현장은 『성유식론』에서 『유가사지론』을 포함 유식계 경론에 산재된 유식불교의 이장설을 정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장에 대한 『성유식론』의 논의는 기존 유식경론에 나타난 이장설을 종합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장은 호법의 설을 중심으로 『성유식론』을 편찬했으므로 자신의 견해를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장에 대한 현장의 독창적 해석은 등장하지 않는다. 실제로 『성유식론』에 등장하는 이장의 내용은 법상유식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 및 국외의 현대적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는데, 유식문헌에 나타나는 이장에 대한 논의는 『유가사지론』과 『성유식론』의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성유식론』에 나타난 논의를 이장을 중심으로 재구성해서 해석하고, 이를 법상종의 초조(初祖)인 규기의 이장에 대한 설명과 비교해서 확인해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원효는 『유가사지론』과 『대승기신론』의 이장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매우 독창적으로 해석하여 회통하고 있는데, 규기도 마찬가지로 이장에 대한 자신만의 독특한 해석을 행하고 있는지를 『의림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확인해보고자 한다.

II. 이장의 정의

번뇌(kleśa)란 몸과 마음을 교란하고 오염시켜 미혹하게 함으로써 몸과 마음을 평온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 작용을 총칭하는 말이다. 『입아비달마론(入阿毘達磨論)』에서는 번뇌를 “몸과 마음을 번란하고 찌그러지게 하므로 번뇌라고 한다. 이는 곧 수면이다.”²⁾라고 정의하고 있다. 번뇌라는 말은 대승불교에 들어와 번뇌장(煩惱障)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소지장(所知障)과 대응되는 형태로 쓰이게 된다. 부파불교에서는 무지를 염오(染汚)무지와 불염오(不染汚)무지로 나누는데 염오무지는 번뇌장, 불염오무지는 소지장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 경우 염오무지인 번뇌장은 초기 불교 이래 해탈을 장애하는 주요 번뇌에 해당된다.

소지장에 해당하는 불염오무지는 『대비바사론』 1권(T27, 735b-c)에서 그 사례를 볼 수 있다. 이 논에서는 붓다와 2승의 차이에 관한 구별 방법을 21가지 설을 열거하여 상세히 논하고 있다. 그 설 중 하나가 불염오무지를 끊는 것이 붓다이며, 2승은 불염오무지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다.³⁾ 『대비바사론』에 불염오무지는 일체법에 대한 무지로서 명백하게 승의와 세속의 대상에 대한 무지를 불염오무지라고 보고 있다.⁴⁾

이 경우 소지장은 이른바 “알아야 할 것”을 막는 장애로 깨달음(菩提)을 얻지 못하게 한다. 소지장은 이른바 대승과 소승을 구별하는 개념 중 하나로 쓰이게 된다. 소승에서는 번뇌장을 끊을 수 있지만 소지장을 제거할 수는 없어서 인무아(人無我)의 증득에만 그친다. 대승에서는 번뇌장뿐 아니라 소지장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며, 소승에서는 불가능했던 법무아(法無我)를 증득할 수 있다. 결국 소지장(jñeyavarana)의 유무는 대승과 소승을 구별하는 개념의 하나가 된다.

유식문헌에서 소지장의 소지(jñeya)란 무엇인가. 소지란 알아야 할 것이라는 일상적 언어로부터 한편으로 수행적으로 획득해야 할 이상적인 인식대상인 진실(tattva) 혹은 진여(tathatā)나 다른 한편으로 일체법(一切法)이라고 볼 수 있다. 획득해야 할 어떤 이상적인 것을 가르

2) 『입아비달마론』(T28, 984a), “煩惱逼惱身心相續故名煩惱。此即隨眠。”

3) 『아비달마대비바사론』(T27, 735b), “若斷二種無知。謂不染。說名為佛。聲聞獨覺唯能斷染。不斷不染。故不名佛。”

4) 『아비달마대비바사론』(T27, 887b), “一切染汚不染汚癡皆永斷故。覺了一切勝義世俗諸爾焰故。”

키지만 그 의미는 애매한 측면이 없지 않다. 『불지경론(佛地經論)』에는 소지장을 일체지(一切智)를 장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소지장이란 소지의 경(境)에 있어서의 불염무지이다. 일체지를 장애한다. 열반을 장애하지는 않는다.⁵⁾

여기서 일체지가 진여인지 아니면 일체법인지에 대해서는 그 구분이 애매하다. 규기(窺基)는 『성유식론술기(成唯識論述記)』(이하 『술기』)에서 소지를 일체법으로 정의한다.

소지란 곧 일체법이다. 만약 유이거나 무인 것 모두 소지이기 때문이다. 소지를 아는 지(智)를 설하여 해로 삼는다. 애(礙)는 장(障)의 뜻이다. 법집의 류에 의거해 소지의 경을 덮고[覆] 바른 이해를 장애(障礙)하여 일어나지 않게 한다. ... 법집의 류에 따라 소지의 경을 덮고, 지(智)를 생하지 않게 하여 소지장(所知障)이라고 이름한다. 이것은 장(障)하는 바에 의거하여 장이라는 이름을 세운다. 소지의 장이라는 뜻으로 의주석이다.⁶⁾

『성유식론』의 소지장에 대한 정의는 “인식 대상과 전도됨이 없는 본성을 덮어서 능히 깨달음을 장애하는 것을 소지장이라고 한다.”라고 정의되고 있으므로 이 경우의 소지란 인식대상 + 전도됨이 없는 본성(=진여)라고 봐야 한다. 즉 일체법과 진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성유식론』의 이장 논의 고찰

이장에 대한 『성유식론』의 논의를 알아보기 전에, 『성유식론』의 소의(所依) 논서인 『유가사지론』에 나타난 이장(二障)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유가사지론』의 이장 논의

『유가사지론』은 100권에 이르는 방대한 저서로 유식논서 중 가장 초기 논서에 속하며 주제가 일관성있게 전개되는 논서가 아니라 각 장 별로 서로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번뇌설에 있어서도 맹아적 형태는 물론 체계적으로 정립된 형태까지 다양한 층위로 전개되고 있다. 『유가사지론』에서 다루고 있는 번뇌설 중에서 이장을 cbeta로 검색해보면, 번뇌설의 전체 내용에 비해 훨씬 적게 나타난다. 『유가사지론』의 번뇌설은 체계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이장과도 무관한 다양한 종류의 번뇌가 장(障, āvaraṇa)이란 이름으로 나열되어 있기도 하다. 또한 아비달마 논서에 언급된 번뇌설과 혼재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럼에도 『유가사지론』의 번뇌설이 중요한 이유는 이장은 물론 여러 번뇌설과 함께 언급되기 때문이다. 『유가사지론』 「본지분」에 나오는 128번뇌는 아비달마의 98수면(隨眠)을 기초로 발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안성두, 2003) 번뇌가 128가지로 정리되는 이유는 10종의 근본번뇌[탐(貪)·진(瞋)·치(癡)·만(慢)·의(疑)·신견(身見)·변견(邊見)·사견(邪見)·견취견(見取見)·계금취견(戒禁取見)]을 4성제(四聖諦)와 3계(三界)의 범주로 확장시킨 것이다. 128번뇌가 소멸되는 단계로서 각각 견도에서 끊어지는 것[見道所斷]과 수도에서 끊어지는 것[修道所斷]로 나누고, 또 다른 범주인 구생기 번뇌와 분별기 번뇌로 다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유식에서는 식체가 8식으로 구성되므로, 각 식에 상응하는 번뇌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유가사지론』 「섭결택분」에는 104혹(惑)이 정리되고, 『유가사지론』의 「보살지」에는 또 다른 범주로 8종 분별을 거론하고 있다. 번뇌장과 소지장을 다루는 내용은 『유가사지론』 「섭결택분」에 나타난다. 지(止)와 관(觀) 수행을 통해 10지(地)에서 제거되는 장(障)을 언급하는 가운데 번뇌장이 소지장으로부터 근거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T30, 733a) 이 경우 번뇌장은 현행하는 번뇌인 반면 소지장은 수면(睡眠)과 같이 잠복되는 번뇌로 언급되고 있다. 『유가사지론』에는 번뇌장이 반복해서 등장함에도 소지장이 같이 언급되는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정장(定章)이나 해탈장(解脫障)과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다. 『유가사지론』에서는 아직 이장을 한 쌍으로 묶어 설명하려는 경향이 확립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유가사지론』 「본지분」에서는 번뇌장과 소지장을 성문/벽지불 및 보살의 수행과 연관지어 설하고 있다. 성문/벽지불 종성은 번뇌장을 끊고 소지장을 끊을 수 없는 반면, 보살 종성은 번뇌장은 물론 소지장까지 청정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T30, 478c) 성문은 번뇌장을 끊을 수 있지만 소지장은 끊지 못하고, 보살은 둘 다 끊을 수 있다는 내용은 이후 『성유식론』 번뇌론과 수행론의 핵심이 된다.

『성유식론』에 잘 정리되어 있는 것과 다르게, 성문은 인무아[我空]를 증득하여 아집(我執)을 끊고, 불(佛)·보살은 법무아[法空]를 증득하여 법집(法執)을 끊는다는 내용은 『유가사지론』 「본지분」에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대신 불·보살이 법무아에 들어간다는 내용만 언급되

5) 『불지경론』(T26, 310c), “所知障者於所知境不染無知。障一切智不障涅槃。”

6) 『성유식론술기』(T43, 235c), “言所知者。即一切法若有若無皆所知故。了所知智說之爲解 礙是障義。由法執類覆所知境。障礙正解令不得生 ... 由法執類覆所知境令智不生名所知障。此從所障以立障名。所知之障。依主釋也。”

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이장이 2공(空)과 연결되어 있고, 각각 성문과 불·보살로 연결시키는 내용은 『유가사지론』에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 맥락에 해당되는 번뇌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가사지론』이 『성유식론』과 같은 후대 유식논서에 미친 영향을 짐작해 볼 수 있다.

2. 『성유식론』의 이장 논의

다음으로 『성유식론』에 등장하는 이장과 관련된 내용을 『술기』의 주석을 일부 참고해서 고찰해보기로 한다. 『성유식론』은 이장의 논의를 바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공(空) 및 수행계위와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있다. 후대 유식에서 이장을 가장 체계적이고 완성된 형태로 조직화하고, 반열반과 대보리라는 수행 및 그 계위인 유식5위와 연결지는 것이 바로 『성유식론』이라고 볼 수 있다. 『유가사지론』이나 『섭대승론』에서 이장이 체계적이지 않고, 논서의 여러 곳에 그 내용이 산재되어 있는 것과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성유식론』(1권)에서는 귀경계(歸敬偈)를 설한 후 바로 이어서 논(論)을 짓는 이유를 2집(執)·2공(空)·2장(障)·2과(果)와 연결지어 설명한다.

지금 이 논을 짓는 이유는 2공(空)에 대해서 미혹하거나 잘못 아는 자로 하여금 바른 이해를 내도록하기 위해서이다. 이해를 일으키는 것은 두 무거운 장(二重障)을 끊게 하기 위해서이다. 아집과 법집으로 인해 이장이 함께 일어난다. 만약 2공(空)을 증득하면 그 장(障)도 따라서 끊어진다. 장(障)을 끊는 것은 두 가지 수승한 과보를 증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을 계속하게 하는 번뇌장을 끊음으로써 진해탈을 증득한다. 이해를 장애하는 소지장을 끊음으로써 대보리를 증득한다.⁷⁾

『성유식론』을 짓는 목적은 완전한 과(果)를 증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2공(空)을 알아야 하고, 2장(障)을 끊음으로써 2집(執)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를 2단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2집(執) = 아집(我執)·법집(法執) → 2공(空) = 아공(我空)·법공(法空)

2장(障) → 2공(空) → 2과(果) = 진해탈(眞解脫)·대보리(大菩提)

먼저 2집인 아집(我執)과 법집(法執)을 없애기 위해서는 2공이 증득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2집의 결정체인 2장(障)을 끊어야 2공(空)을 증득하여 2과(果)에 이를 수 있다. 이처럼 『성유식론』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논서의 맨 처음 조론(造論)의 목적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구도에 의거해서 성유식론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번뇌장과 소지장을 없애고, 해탈과 보리에 들어가는 방법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성유식론』의 내용은 친광(親光)의 『불지경론(佛地經論)』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친광은 호법(護法)의 제자이므로 호법의 유식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술기』에서는 이 부분을 오(悟), 단(斷), 득과(得果)로 나누어 주석하고 있다. 『술기』와 규기의 또 다른 주석서인 『추요』에서는 『성유식론』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주석하고 있긴 해도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대신 그 전거가 되는 경론(經論)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해당 부분의 내용을 성실하게 경증(經證)과 이증(理證)으로 뒷받침하고 있을 뿐이다.

『성유식론』 제9권에는 번뇌장과 소지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리고 있다.

번뇌장이란 변계소집을 실아로 집착하는 아견을 첫째로 하는 128가지 근본번뇌 및 그것의 등류인 모든 수번뇌를 말한다. 이것이 모두 유정의 몸과 마음을 어지럽게 괴롭혀서 능히 열반을 장애함을 번뇌장이라고 한다. 소지장이란 변계소집인 실법으로 집착하는 아견을 첫째로 하는 악견·의(疑)·무명·탐·진·만 등이다. 인식 대상과 전도됨이 없는 본성을 덮어서 능히 깨달음을 장애하는 것을 소지장이라고 한다.⁸⁾

여기서 번뇌장에 대한 설명은 『유가사지론』 「본지분」에 나오는 128번뇌설을 계승하면서도 열반을 장애한다는 의미를 부가하고 있다. 소지장의 번뇌 수 역시 번뇌장과 같으나 번뇌장이 실아(實我)에 집착하는 측면에 비중을 둔 반면, 소지장은 같은 번뇌인 경우라도 실법(實法)에 집착하는 것을 들고 있으며 나아가 깨달음[菩提]을 장애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7) 『성유식론』(T31, 1a), “今造此論爲於二空有迷謬者生正解故。生解爲斷二重障故。由我法執二障具生。若證二空彼障隨斷。斷障爲得二勝果故。由斷續生煩惱障故證眞解脫。由斷礙解所知障故得大菩提。”

8) 『성유식론』(T31, 48c), “煩惱障者 謂執遍計所執實我薩迦耶見而爲上首百二十八根本煩惱 及彼等流諸隨煩惱 此皆擾惱有情身心 能障涅槃 名煩惱障。所知障者 謂執遍計所執實法薩迦耶見而爲上首見疑無明愛患慢等 覆所知境無顛倒性 能障菩提 名所知障。”

『성유식론』에 등장하는 이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성유식론에 등장하는 이장 관련 논의

내용	번뇌장	소지장	비고
정의	변계소집인 실아로 집착하는 아견을 첫째로 하는 128가지 근본번뇌 및 그것의 등류인 모든 수번뇌를 말함. 유정의 몸과 마음을 어지럽게 괴롭혀서 열반을 장애함을 번뇌장이라고 함.	변계소집인 실법으로 집착하는 아견을 첫째로 하는 악견·의疑·무명·탐·진·만 등으로 식의 대상과 전도됨이 없는 본성을 덮어서 깨달음을 장애하는 것을 소지장이라고 함	『성유식론』 제9권
2집과의 관계	아집: 상일주재하는 자아가 있다고 집착	법집: 외부 사물이나 법이 실재한다고 집착	아공, 법공
2장의 공능	- 윤회를 계속하게 함 - 분단생사(유루의 선불선업이 인, 번뇌장이 연)	- 해(解)를 장애하여 보리를 얻지 못하게 함 부사의변역생사(무루의 분별의 업이 인, 소지장이 연)	부사의변역생사의 경우 자비심으로 중생을 돕기 위해 일부러 태어나는 것을 말함
단절시 얻는 것	진해탈(열반 증득)	- 대보리 증득(보타) 소지장은 해탈을 장애하지 않는다. 업을 일으켜서 태어남을 촉진하는 작용이 없기 때문이다.	
유정의 종성차별	번뇌장과 소지장이 있고 없음에 의함		5종성 차별
득과	보살이 번뇌장과 소지장을 단박에 끊고 아라한은 물론 여래를 성취		
	8지 이상에서는 현행하지 않음	8지 이상에서는 제7식의 소지장만 있음 현행(종자가 아님)	『해심밀경』에 의거
번뇌장과 소지장의 단멸	- 2승은 번뇌장만 단멸 - 번뇌장, 소지장의 종자를 영단하는 것은 성도에서 가능 2장의 현행을 조복하는 것은 유루도에서도 가능	- 보살은 모두 단멸 - 번뇌장, 소지장의 종자를 영단하는 것은 성도에서 가능 2장의 현행을 조복하는 것은 유루도에서도 가능	

『성유식론』의 각 권에서 다루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유식론』(2권)에서는 신흠종자, 본혼종자를 논하면서 전5식의 소지장이 초지에서 단절된다고 말한다. 이때 구생기 아집, 분별기 아집, 구생기 법집, 분별기 법집이 단절된다는 것이다. 『성유식론』(3권)에서는 아라한은 번뇌의 종자를 단절하지만 보살은 이장을 끊고 아라한은 물론 여래를 성취할 수 있다고 말한다. 『성유식론』(5권)에서는 『해심밀경』을 인용하여, “8지 이상에서는 번뇌가 없다. 제7식의 소지장만 있다. 이 소지장은 현행하지만 종자는 아닌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번뇌장의 종자도 또한 존재한다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8지 이상에서는 제6식의 번뇌장·소지장과 제7식의 번뇌장이 없다는 것을 설하고 있다. 다음으로 『성유식론』(8권)에서는 여래장 계통 경전인 『승만경』을 인용하면서 5주지(住地) 번뇌 중 무명주지(無明住地)가 소지장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2중 생사(生死)를 논하면서 분단생사(分段生死)는 번뇌장의 소멸에 의한 것이고, 부사의변역생사(不思議變易生死)는 소지장의 소멸이라고 설하고 있다. 이 내용은 이른바 2승은 분단생사를 추구하지만 불·보살은 부사의변역생사에 해당되며, 소지장은 발업과 윤생 작용이 없어서 해탈을 장애하지 않지만 깨달음을 장애한다고 번뇌장과 소지장의 단멸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다.

『성유식론』 제9권과 10권에서는 이장을 수행계위인 유식5위와 연관시켜 자세하게 풀이하고 있다. 먼저 자량위에서 2취의 종자는 소지장과 번뇌장의 종자이며 이 계위에서는 아직 2취의 수면을 완전하게 조복하고 단멸할 수 없다. 가행위와 통달위에서 본격적으로 번뇌장과 소지장의 현행과 종자가 조복되고 단멸된다. 『성유식론』에 등장하는 번뇌[惑]를 끊는 과정은 복(伏), 단(斷), 사(捨)의 셋으로 구분되어 언급된다. 여기서 복이란 현행을 조복(調伏)하는 것이고, 단이란 종자를 단절하는 것이며, 사(捨)란 남은 잔기(殘氣)조차 없앤다는 의미이다. 또한 조복이나 단절의 경우도 점복(漸伏)과 영복(永伏), 점단(漸斷)과 돈단(頓斷), 영단(永斷)으로 나누어 점차 혹은 영원히 조복하거나 단절하는 형태로 전개된다. 따라서 수행이 깊어지면서 이장의 현행에 대한 조복이 먼저 일어나고 이장의 종자가 끊어지는 단절이 나중에 일어난다. 식에서도 전6식의 조복, 점복, 영복이 먼저 일어나고 제7식의 조복, 점복, 영복이 이어진다. 전6식보다 제7식의 번뇌가 더 근원적이고 잠재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수행이 깊어짐에 따라 전6식과 제7식의 이장의 종자가 점단, 돈단, 영단으로 이어진다.

먼저 가행위에서는 전6식의 번뇌장·소지장의 현행이 점복된다. 번뇌장의 경우 통달위인 견도에서 전6식과 제7식의 현행이 점복 혹은 영복

되고 8지 이후에서 제7식에 상응하는 번뇌장이 영복된다. 소지장의 경우에는 견도에서 제7식 상응 소지장이 점복되고 제8지 이후 전6식 상응 소지장이 영복된다. 수도에서는 번뇌장은 금강유정에서 전6식과 제7식 번뇌장이 돈단이 되고, 소지장은 전6식 상응 소지장 점단이고 금강유정에서 전6식 소지장이 영단되고, 제7식 소지장의 돈단이 이루어진다.(<표 2> 참조)

결과적으로 수습위에서 이장의 추중을 단멸하여 전의(轉依)를 증득하는데, 이때 번뇌장을 끊고 대열반을 증득하고 소지장을 끊고 대보리 증득(轉捨轉得)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소지장과 관련된 10중장(重障)은 10바라밀 수행을 통해 끊는다. 수습위에서는 번뇌장이 극히 미세한 것만 남아 있다. 구경위에서는 번뇌장과 소지장이 완전히 단절되고 진여가 소지장에서 벗어나는 무주처열반을 증득하게 된다.

<표 2> 유식5위에서 이장의 단멸⁹⁾

유식5위		번뇌장의 조복/단멸	소지장의 조복/단멸
자량위		전6식 현행 두드러진 번뇌장 조복(調伏)	
가행위		전6식 상응 구생기의 번뇌장 현행 점복(漸伏)	전6식 상응 소지장 현행 점복
통달위(견도)	~제7지	전6식 상응 번뇌장 현행 영복(永伏) 제7식 상응 번뇌장 현행 점복	제7식 상응 소지장 현행 점복
	제8지	제7식 상응 번뇌장 영복	전6식 상응 소지장 영복
수습위(수도)	제10지		전6식 상응 구생기의 소지장 점단
구경위	금강유정	전6식 상응 번뇌장 돈단 제7식 상응 번뇌장 돈단	전6식 상응 구생기의 소지장 영단 제7식 상응 소지장 돈단

이상과 같이 『유가사지론』과 『성유식론』에 나타나는 번뇌장·소지장의 이장(二障)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유가사지론』에서는 이장이 맹아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성유식론』은 매우 구체적으로 이장과 열반·보리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한다. 이장에 초점을 맞추어 『성유식론』을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논(論)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장을 끊기 위한 조건과 그 계위를 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IV. 『의림장』 「단장장(斷障章)」의 이장 논의

『의림장』은 규기의 독창적 저술로서 각기 독립적인 주제의 29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의림장』은 규기가 평생 동안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술기』와 『성유식론장중주요』보다 후대의 저작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의림장』의 내용은 규기 사상의 완성된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의림장』에는 이장을 단멸하는 내용을 담은 「단장장(斷障章)」 및 2장의 원인으로 2집(執)을 설명한 「이집장(二執障)」을 별도의 장으로 두고 있으며 「유식장(唯識章)」에서도 2장에 대해 간략히 설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단장장」에 나타난 이장의 내용을 간략히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단장장」의 내용을 간추려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장장」은 번뇌장·소지장의 이장을 끊는다는 내용으로 규기는 총 10문(門)을 두고 단장장에 대해 분류하고 있다. 10문은 ①석명(釋名) ②출체(出體) ③의식분별(依識分別) ④의도분별(依道分別) ⑤의관분별(依觀分別) ⑥의행분별(依行分別) ⑦의품분별(依品分別) ⑧의장분별(依障分別) ⑨소의분별(所依分別) ⑩문답분별(問答分別)의 10가지이다. 각 10문에서 논하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⁰⁾

①석명(釋名)

석명은 이름을 해석하는 것으로 장(障)의 의미 및 소지장·번뇌장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장이란 덮는다는 의미이므로 소지장은 소지가 되는 대상[境]을 덮기 때문에 지(智)가 생기지 못하게 한다. 번뇌장은 대열반을 막아 현증하지 못하게 한다. 『대법론』 제9권을 인용하여 세 종류의 전의(轉依)를 막기 때문에 장(障)이며 이를 끊는 것을 단장(斷障)이라고 설한다고 한다. 단장을 일반적인 의미에서 간략히 풀이하고 있다.

②출체(出體)

출체에서는 장(障)의 체를 나타내며, 장(障)이란 현행 및 종자의 습기 및 그 업과 과를 체성으로 한다고 설한다. 또한 견도에서 끊어지는 것으로서 일체의 분별을 들고 있다. 『대법론』, 『해심밀경』 제3권, 『성유식론』 제9권, 『불지경론』, 『불지경론』 제10권 등을 인용해서 번뇌장과 소지장이 끊어지는 위(位), 유루·무루의 2도와 가행(加行)·근본(根本)·후득(後得)의 3지(智)를 통해 이장을 단절하는 것을 보이고 있다. 이 내용은 기존의 경론을 반복하고 있으며 특히 『성유식론』 제9권·제10권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9) 『성유식론』(T31, 48b-57a)의 유식5위에 나타나는 번뇌장과 소지장의 조복과 단멸을 정리한 내용이다.

10) 여기서는 『대승법원의림장』 「단장장」(T45, 282a-287b)의 내용을 요약하였다.

③의식분별(依識分別)

식(識) 분별을 다루고 있으며 여기서는 끊어야 할 대상인 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살바다부 등에서는 끊어야 할 대상이 6식에 있지만, 대승논사 중 안혜는 소지장은 제7식을 제외한 다른 7식 모두에 있고, 번뇌장은 제8식을 제외한 7식 모두에 있다고 한다. 호법은 2장은 전7식 모두에 있고, 장(障)으로 인한 업보는 오직 전6식에만 있다고 한다. 이 내용 역시 『성유식론』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④의도분별(依道分別)

도(道) 분별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도는 가행도·무간도·해탈도·승진도의 넷을 말한다. 간략히 요약하면 2승은 근기가 둔하여 따로 무간도와 해탈도를 일으킨다. 즉 가행도는 2장의 단절에 이르고, 승진도에서는 수행이 진전됨에 따라 2장을 끊는다. 무간도와 해탈도에서는 각각 수면을 끊고, 추중을 없앤다. 한편 보살은 이근(利根)을 가지고 있으므로 점차 장애를 끊으므로 별도로 무간도와 해탈도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상의 내용도 『대법론』 제9권과 『성유식론』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⑤의관분별(依觀分別)

관(觀) 분별을 다루고 있으며, 관을 10종을 나누어 차례로 언급한다. 첫째는 유식, 둘째는 2공, 셋째는 3혜, 넷째는 3지(智), 다섯째는 4념처, 여섯째는 5인(忍), 일곱째는 6현관(現觀), 여덟째는 7작의(作意), 아홉째는 7각지(覺支), 열째는 8성도(聖道)이다. 유식이란 유식관으로써 장을 끊는 것을 말하고, 2공이란 아공관과 법공관으로 장을 끊는 것을 논하고 있다. 이처럼 10가지 관법으로 장을 끊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각의 자세한 내용은 지면상 생략한다.

⑥의행분별(依行分別)

행(行) 분별은 다시 3종으로 나누는데 첫째 공(空)·무상(無相)·무원(無願)의 행으로 각각의 행을 통해 장(障)을 조복한다. 둘째 고(苦)와 추(麤) 등의 6행은 모두 유루의 방편으로 이를 관하여 무간도에 든다. 셋째 16행은 진견도와 상견도의 16행을 말한다. 여기의 내용 역시 『현양성교론』 제2권, 『유가사지론』, 『불성론』 등의 설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⑦의품분별(依品分別)

품(品) 분별은 9품으로 장(障)을 끊는 것을 말한다. 3계 9지를 9품으로 끊기 때문에 81가지의 품이 있다. 『유가사지론』, 『성유식론』의 설을 인용하여 9품으로 9지(地) 각각의 장(障)을 끊는 것을 논하고 있다.

⑧의장분별(依障分別)

장(障) 분별을 총 9가지로 설하고 있다.

첫째, 이장에 의한 분별로서 2승은 번뇌장의 현행과 종자를 단절하지만 습기는 단절하지 못하고, 소지장의 일부만 영구히 단절한다. 반면 보살은 일체를 단절한다.

둘째, 3장에 의한 분별로서 다시 셋으로 나눈다. 피(皮)·부(膚)·골(骨), 해반수면(害伴睡眠)·맹열수면(羸劣睡眠)·미세수면(微細睡眠), 혹(惑)·업(業)·고(苦)의 셋이다. 각각에 대해 끊는 지(地)를 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가사지론』 제9권을 인용한다.

셋째, 4(障)장에 의한 분별로서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일천제의 불신, 둘째는 불공무명·상응무명·전(纏)·수면(睡眠)의 넷이다. 무명에 따라 단절하는 위(位)가 달라지는 것을 논하고 있다.

넷째, 5장(障)에 의한 분별로서 5주지(住地)를 말하며 각각 견일처(見一處)·욕애(欲愛)·색애(色愛)·무색애(無色愛)·무명(無明)주지이다. 여기서 앞의 넷은 번뇌장이고, 무명주지는 소지장이다. 『인왕경』을 인용해서 설하고 있다.

다섯째는 6가지 산동(散動)으로 각각 자성산란(自性散亂)·외산란(外散亂)·내산란(內散亂)·상산란(相散亂)·추중산란(麤重散亂)·작의산란(作意散亂)이다. 여기서는 각각을 간략히 설명하고 『대법론』 제1권과 같다고만 설하고 있다.

여섯째는 7가지 수면을 들고 있다. 수면은 번뇌장에 속하는데 각각에 7가지 유루를 배대한다. 7가지 유루는 견루(見漏)·사유루(思惟漏)·애루(愛漏)·염루(念漏)·근루(根漏)·악루(惡漏)·친근루(親近漏)로서 앞의 둘이 체이고 뒤의 다섯이 이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모두 견도소단이다.

일곱째는 8분별이 3사(事)를 생하는 것을 다룬다. 이 내용은 『유가사지론』 「보살지」 36권에서 설하는 것과 같다. 8분별은 자성(自性)·차별(差別)·총집(總執)·아(我)·아소(我所)·애(愛)·비애(非愛)·구상위(俱相違)의 8가지로 견소단인지 수소단인지를 밝히고 있다.

여덟째는 9결(結)로서 9결 중 견결(見結)·취결(取結)·의결(疑結)은 견소단이고 나머지 6결은 수소단이다. 이어서 『보성론』의 9수면을 언급한다. 9수면은 수면탐욕(睡眠貪欲)·수면진(睡眠瞋)·수면치(睡眠癡)·삼독극상심(三毒極上心)·무명주지(無明住地)·견제소멸(見諦所滅)·수습소단(修習所斷)·부정지혹(不淨地惑)·정지혹(淨地惑)의 9가지로서 견제소멸은 견도, 수습소단은 수도, 나머지 7가지는 견도와 수도 모두에 해당된다.

아홉째는 10번뇌로서 10산동(散動)이라고 한다. 『변중변론』 제1권에 언급된 장(障)과 연결짓고 있다.

⑨소의분별(所依分別)

소의 분별은 신(身)과 지(地)의 둘로 크게 나뉜다. 첫째 신(身)의 경우 번뇌장을 조복하는 3계 9지를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현양성교론』 등을 인용하여 설한다. 둘째 지(地)의 경우도 조복하는 3계 9지 및 견도와 수도, 유루·무루 등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가사지론』 제 69권, 제100권 등의 설을 인용한다.

⑩문답분별(問答分別)

마지막 10문으로 문답으로 분별한다. 주요 문답으로는 3세 중 번뇌를 어디에서 끊는지, 단절되는 번뇌에 불퇴전이 있을 수 있는지, 만약 퇴전이라면 왜 단절이라고 하는지, 번뇌를 끊을 때 자상(自相)·공상(共相)의 해석과 그 풀이, 번뇌를 어떤 순서로 끊어야 하는지, 견도와 수도에 끊는 경우 돈(頓)인지 점(漸)인지 등을 묻고 자답하는 형태로 맺고 있다.

「단장장」의 10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장장」에는 『성유식론』이나 『술기』 등에 언급되는 이장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이나 보충되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고, 법수(法數)를 통해 이장을 아주 간략히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의림장』 전반에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논점에 대한 깊이 있는 소개 대신 규기 나름의 간략한 방식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단장장」의 이름을 풀이한 후 번뇌장과 소지장의 체를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성유식론』 제9권·제10권의 내용 및 기타 유식경론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정리하고 있다. 세 번째인 식분별은 전8식 중 이장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루고 있고 네 번째인 도분별은 가행도·무간도·해탈도·승진도로서 유식5위 중 가행도 이후를 나타내며 이는 어떤 계위에서 이장이 조복 혹은 단절되는지를 다룬다. 다섯 번째 관분별은 이장을 끊는 수행에 대한 내용으로 유식과, 2공, 3혜 등으로부터 8정도까지의 수행을 열거하고 있다. 여섯 번째 행 분별은 삼해탈문인 공·무상·무원, 6행, 통달위에서 행하는 16행 등을 열거하고 있다. 일곱 번째 품분별은 3계 9지의 81품으로 이장을 끊는 내용이다. 여덟 번째는 장(障)에 대한 분별로서 번뇌를 2장(障)~10장(障)까지 나누고 있다. 아홉 번째는 소의로서의 신(身)과 3계 9지를 논하고 있다. 10번째는 문답으로써 번뇌를 끊는 세(世), 불퇴전 여부, 돈점(頓漸) 여부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단장장」에는 총 21종의 유식경론을 인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10지경론』, 『10지경』, 『구경일승보성론』, 『구사론』, 『대반야경』, 『무성성론』, 『변중변론』, 『분별연기초승법문경』, 『불성론』, 『불지경론』, 『성실론』, 『성유식론』, 『열반경』, 『유가사지론약찬』, 『유가사지론』, 『인명정리문론』, 『인왕경』, 『잡심론』, 『잡집론』, 『해심밀경』, 『현양론』 등을 들 수 있다.

이로부터 규기는 「단장장」에서 이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는 대신, 『성유식론』 및 여러 유식경론을 방대하게 인용하여 이장에 대한 설을 백과사전식으로 정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V. 맺는 말

본 논문은 『성유식론』과 『의림장』에 나타난 이장에 대한 논의를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장은 부파불교 시대를 거쳐 대승불교, 특히 유식불교에서 본격적으로 개념이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유가사지론』에 나타난 이장에 대한 논의는 맹아적 형태이지만 『불지경론』과 『성유식론』을 거쳐 완성된 형태가 된다. 완성된 형태의 이장(二障)은 2집(執)과 2공(空), 2과(果)로 연결되어, 궁극적인 열반과 보리를 막는 적극적인 번뇌론의 형태를 띠게 된다. 성유식론에서는 이장을 극복할 필요성과 그 계위를 자세히 논하고 있다. 무엇보다 2집-2공-2장의 구조를 확립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본 논문에서 『성유식론』에 등장하는 이장에 대한 논의를 재구성한 결과 『성유식론』 전체가 이장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고 보았다. 이어서 『의림장』에 나타난 이장에 대한 논의를 분석하여 규기가 이장을 어떻게 해석하고 정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이장에 대한 논의가 집약된 『의림장』 「단장장」의 내용을 분석 고찰하였다. 그 결과 규기는 「단장장」에서 이장에 대한 독창적 해석 대신 유식경론에 나타난 이장을 종합하여 정리하는 데 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원효가 『유가사지론』과 『대승기신론』의 이장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매우 독창적으로 해석하여 회통하고 있는 것과 매우 다른 입장이다. 앞서 보았듯이 원효는 『이장의』에서 이장을 은밀문과 현료문의 둘로 나눈 후 『기신론』의 번뇌설을 은밀문에 배대하고 유식경론의 번뇌설을 현료문에 두고 있다. 이러한 배치를 두고 기신론을 유식보다 우위에 두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는 선행연구도 확인하였다.

규기는 법상종의 초조로서 『유가사지론』과 『성유식론』을 소의로 하면서 자기 저술의 거의 모든 내용을 이들 논서에 기반하여 해석하고자 한 한계가 있으므로, 원효와 같은 통불교적 회통과 해석을 규기로부터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릴 수 있을 것이다.

국문초록

본 논문은 법상유식의 소의 논서인 『성유식론』과 규기(窺基)의 『의림장』에 나타난 이장(二障)에 대한 논의를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부파불교를 거쳐 유식불교에서 번뇌와 깨달음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장으로 집약되어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유가사지론』에 나타난 이장에 대한 논의는 『불지경론』을 거쳐 『성유식론』에 완성된 형태로 정리된다. 결과적으로 『성유식론』에 나타난 이장(二障)은 2집(執), 2공(空), 2과(果)와 연관이 되어 유식불교의 번뇌론과 수행론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성유식론』에 산재된 이장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춰, 『성유식론』의 전개과정을 이장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이장이 유식불교의 번뇌론 뿐 아니라 수행론과 성불 과정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음을 밝혔다. 실제로 유식5위의 수행계위에서도 자세한 수행법을 전개하기 보다는 번뇌장과 소지장의 조복과 단절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가 중심이 되고 있음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원효가 『이장의』에서 유식경론과 『대승기신론』의 이장에 대한 논의를 회통하는 매우 독창적인 해석을 전개한 한편, 규기는 자신의 저술인 『의림장』에서 『성유식론』에 논의된 이장에 대한 해석 이상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고찰하였다. 원효의 회통 불교와는 다르게 규기는 『의림장』에서 이장에 대한 논의를 단지 유식경론의 이장을 정리하고 『성유식론』의 논의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데, 이는 규기의 종파적 한계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이장, 번뇌장, 소지장, 성유식론, 대승법원의림장, 이장의, 규기, 원효

참고문헌

原典

玄奘 譯, 『解深密經』(『大正藏』16)
彌勒 造, 『瑜伽師地論』(『大正藏』30)
護法等 造, 『成唯識論』(『大正藏』31)
窺基 撰, 『成唯識論述記』(『大正藏』43)
窺基 撰, 『大乘法苑義林章』(『大正藏』45)
元曉, 『二障義』(한국불교전서 I)

단행본

안성두 역(2015), 『보살지』, 세창출판사.
안성두 역(2019), 『이장의』, 동국대학교 출판부.
공해 유진 지음(2000), 『번뇌장·소지장의 연구』, 경서원.

논문

기덕철(1987), 「煩惱障과所知障에 對한 小考: 元曉의 二障義를 中心으로」, 『석림』 21집, 1987.
김명실(1998), 「『성유식론(成唯識論)』의 이장(二障) 형성 및 소멸 원리」, 『한국불교학』 24집, 한국불교학회.
김수정(2013), 「원효의 이장의 성립 배경에 대한 일고찰」, 『불교연구』 39집, 한국불교연구원.
석길암(2001), 「元曉 二障義의 思想史의 考察」, 『한국불교학』 28집, 한국불교학회.
안성두(2019), 「유식학의 범무아 해석과 그 증득 방법」, 『인도철학』 56집, 인도철학회.
안성두(2017), 「원효의 『二障義』 <顯了門>에 나타난 해석상의 특징」, 『불교연구』 47집, 한국불교연구원.
안성두(2003), 「유가사지론에 있어 128종 수면(anuśaya)설의 성립과 그 특징」, 『인도철학』 12집, 인도철학회.
이평래(1982), 「원효의 번뇌소지 이장설에 대하여」, 『철학연구』 34집, 한국철학연구회.

- 정은희(2020), 『『대승기신론』의 이장(二障)에 대한 원효와 혜원의 해석 비교』, 『동아시아불교문화』 44집,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 조수동(2013), 「번뇌·소지 2장과 팔식설」, 『철학논총』, 새한철학회.
- 찰스 윌러(2015), 「번뇌와 인식을 확정하다-유식과 여래장에서 2장설의 기원」, 『여래장과 불성』(시리즈 대승불교 8), 씨아이알.
- 최연식(2016), 「元曉 二障義 隱密門의 사상적특징-대승의장 번뇌설과의 사상적 비교」, 『동악미술사학』 19집.
- 舟橋尚哉(1965), 「煩惱障所知障と人法二無我」, 『仏教学セミナー』 通号 1.
- 李平来(1985), 「煩惱所知二障と人法二無我の研究序説」, 『韓國佛敎學SEMINAR』 通号 1.
- 芳村修基(1964), 「所知についての問題」, 『印度学仏教学研究』 通号 23.
- 富貴原章信(1937), 「唯識説に於ける執障の問題」, 『大谷学報』 通号 67.
- 小谷信千代(1978), 「唯識説における法と瑜伽行」, 『仏教学セミナー』 通号 28.
- 小川一乘(1977), 「所知障に関するノート」, 『三藏集』 第 138, 139 番.
- 松下俊英(2014), 「所知障と五明処」, 『仏教学セミナー』 通号 99.
- 佐々木宣祐(2012), 「所知障の研究」, 『印度学仏教学研究』 通号 128.
- 舟橋尚我(1965), 「煩惱障所知障と人法二無我」, 『佛敎學セミナ』 第一號.
- 池田道浩(2000), 「Candrakīrti の所知障解釈」, 『印度学仏教学研究』 通号 97.
- 池田道浩(2003), 「不染汚無明(不染汚無知)と所知障」, 『印度学仏教学研究』 通号 103.
- 池田道浩(2013), 「所知障と定障」, 『駒澤大學佛敎學部論集』 通号 44.
- 池田道浩(2013), 「所知障の所知とは何か」, 『駒沢大学仏教学部研究紀要』 通号 69.
- 池田道浩(2011), 「瑜伽行派における所知障解釈の再検討」, 『駒沢短期大学仏教論集』 通号 6.
- 倉松崇忠(2017), 「不染無知と解脱障」, 『印度学仏教学研究』 通号 143.
- 太田路子(2018), 「チャンドラキールティの菩薩階梯における所知と無明の習気について」, 『真宗文化：真宗文化研究所年報』 通号 27.
- ミューラーチャールズ(2006), 「『起信論』の二障に於ける慧遠と元曉」, 『印度学仏教学研究』 通号 110.
- Muller Charles(2000), 「On Wōnhyo's Ijangui (二障義)」, 『韓國佛敎學 SEMINAR』 8.
- Muller Charles(2004), The Yogācāra Two Hindrances and Their Reinterpretations in East Asia,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 27-1.